

Chapter 7. 탐험과 외세의 간섭

알타 캘리포니아에 스페니쉬 성직자들, 군인들, 그리고 이주자들이 정착해가고 있던 오랜 기간동안에도 스페인 국왕은 계속 탐험을 추진했다. 멕시코시티에서 뉴스페인 총독 “안토니오 부카렐리”는 캘리포니아 해안의 최북단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1775 년 3 월에 그는 “브루노 데 헤세타” 대위와 “후안 프란시스코 델 라 보데가” 두사람을 “상블라스” 북쪽으로 행해하도록 했다. 북위 41 도에서 그들이 탄 배는 멋진 만으로 들러섰는데, 거기에는 야생 장미들, 붓꽃들, 철쭉, 그리고 큰 소나무들로 가득찬 멋진 곳이었어서, 그곳을 스페인 국왕령으로 선포했다. 그날이 “성 트리니티”날이었어서, 그 만을 “트리니타드”라고 불렀는데,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1792 년 콜럼비아강에 도착한 미 해군의 “로버트 그레이”가 콜럼비아강을 발견했다고도 하지만, “헤세타” 대위가 1775 년 7 월 27 일에 그 강을 발견한 공도 차지해야 한다. “헤세타” 대위가 춥고 습기가 많은 “뱅크버”섬의 서쪽 해안 지대에 있는 “누트카”에 도착했을 때, 선원들이 너무나 지친 상태가 되어, 그는 할 수 없이 캘리포니아 서쪽 해안쪽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식량과 물도 부족하고, 선원들은 괴혈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보데가”는 추운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전진했지만, 마침내 충분한 옷이 없어서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남쪽으로는 철수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 배위의 모든 것이 출렁거렸고, 배에는 물이 들어차게 되었다. 1775 년 10 월 3 일, “보데가”의 배는 “포인트 레이즈”에서 4 리그 북쪽에 있는 만으로 들어 갔고, 거기서 곰들과 사슴들이 제방가에서 먹이를 잡아 먹는 것을 보았고, 배의 항해사는 그곳을 “보데가 만”이라 이름 붙였다. 그 지역은 그후에도 오랫동안 멀고 먼 외지로 남아 있었다.

다른 스페인 제국의 영토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사람들은 파분했지만 조용한 삶을 살았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이주민들은 국왕과 교황의 이름 정도는 알았지만 그외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모르고 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황폐화된 스페인의 물자 공급 시스템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물자들을 다른 외국 선박들이 가져다 주게 되었는데, 이들 외국 방문자들이 캘리포니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얘기 하지 않았더라면, 캘리포니아는 거의 섬처럼 고립되어 살았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북서쪽 해안에서 성행하던 모피거래는 점차 유럽과 미국 선박들이 더 남쪽으로 내려 오게 만들었으며, 1785 년 8 월에 “브레스트”를 출발한 프랑스 출신의 과학자이자 항해사였던 “장 프랑소와 드 갈라웁 델 라 빼루즈”가 이끄는 지리, 과학, 상업 탐험대가 도착했다. Monterey 만에 2 척의 배를 정박해두고, “빼루즈”와 지리학자들, 그리고 식물학자들은 10 일간 각종 샘플을 수집하고, 목격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그림으로 남겨 두었다. 친절한 캘리포니아인들이 그들에게 소, 채소, 우유, 가금, 그리고 곡식을 식량으로 제공했으며, 그 댓가로, 방문객들은 담요, 구슬, 도구들, 그리고 칠레에서 가져온 씨감자들을 주었다.

“라 빼루즈” 탐험대가 떠난 후, 1825 년에 “뉴 헤브라이즈”에서 발견된 두 프랑스 배의 난파선 조각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두번 다시 목격되지 않았다. “라 빼루즈”가 그가 작성한 일지를 프랑스로 미리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의 항해에 관한 어떤 기록도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1791 년 9 월, 이탈리아 사람 “알레한드로 말라스피나”가 지휘한 스페인 탐험대가 또 캘리포니아를 찾아왔다. 그들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아니안 해협”을 찾아 세계 일주를 하는 임무를 띄고 있었는데, “말라스피나”가 작성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체류 기록은 귀중하기는 하지만, “라 빼루즈”나 나중의 영국인 “조지 뱅쿠버”의 기록들 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말라스피나”는 처음으로 사망한 미국인을 해안으로 데려온 사람이 되었는데, 그 미국인은 항해중 사망한, 배의 총기 담당 “존 그린”이었다.

18 세기 내내, 영국은 캘리포니아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1792 년에 “뱅크버” 대위는 캘리포니아 근처 지역에 스페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소유되지 않은 지역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1 월 14 일 “뱅크버” 대위는 “슬루프”형 군함인 “디스카버리”호를 타고 San Francisco 만으로 들어 왔는데, 당시 스페인과 영국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뱅크버”대위는, 지역의 신부들과 군 장교들로 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뱅크버” 팀은 Santa Clara 미션도 방문하고 San Francisco 로 돌아왔는데, 그는 그렇게 깊숙한 내륙 지역까지를 방문한 첫 외국인이 되었다. San Francisco 에서 그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영국제 수저와 지역의 교회들에서 쓸 철제 장식품들을 주었다. “뱅크버”팀은 Carmel 미션의 신부들에게서도 대접을 받았는데, 그 다음해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저번 만큼 잘 대접을 해주지 않아 무척 화를 내었다. 그 이유는, “아리야가” 주지사가, 어떤 외국인들이라도 내부 지역까지 여행하는 것을 스페인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반대 했기 때문이었다.

1796 년에 “보스톤”을 출발한 미국 선박 “앗터”호가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 닻을 내렸다. 비밀리에 10 명의 남자들과 1 명의 여자를 뺀중 총으로 위협해서, Carmel 해변에 내려 놓았는데, 이들은 남태평양에 있던 영국의 유형지 “보타니 베이”에서 “앗터”호를 타고 탈출해온 죄수들이었다. “보리카” 주지사는 비록 화가 났지만, 그들이 하루에 19 센트를 받으면서 목수나 대장장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후, 미국 선박들이 계속 캘리포니아 항구들로 들어왔지만, 스페인 관리들은, 캘리포니아 이주민들과 “보스톤”에서 오는 배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각종 밀수 행위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외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1799 년에 또 하나의 “양키”배인 “일라이저”호는 San Francisco 에 정박해서 다른 캘리포니아 항구들에는 들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물자를 공급받기도 했다.

외국인 밀렵자들과 상인들이 계속해서 캘리포니아로 왔기 때문에 멕시코시티에 있던 총독은 외국인들과의 상거래를 금지하는 더욱 강력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지만, 그런 명령들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양키” 상인들은 지역의 각종 규칙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었다. 1803 년 3 월 22 일에는 San Diego 해변에서 거래하던 승무원들중 몇 명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미국 선박 “틸리아버드”호와 San Diego 해안 경비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배는 총상을 많이 입게 되었다. 선장 “윌리엄 셰일러”는 선원들을 안전하게 하와이를 거쳐 중국으로까지 피신 시켜야 했지만, 바로 그 다음 해, “틸리아버드”호는 캘리포니아로 와서 다시 모피 거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윌리엄 셰일러” 선장은 이번에는 San Diego 나 Monterey 요새들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배를 정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미국 상인들의 활동이 결국에는 스페인 국왕이 정한 규칙들을 무력화시켰지만, 그들도 때로는 심한 문제들을 떠안게 되었다. 1813 년 “머큐리”호의 “조지 와싱턴 이어즈” 선장은 큰 스페인 범선을 만나 체포되었고, Santa Barbara 로 잡혀가 2 년간이나 갇히게 되기도 했다.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제품들과 중국제 귀중품들을 바다 수달 가죽, 황소 가죽, (단추를 만드는데 쓰인) 소뿔 등과 교환하는 해안가의 불법 교환 행위는 비록 위험했지만, 그 댓가는 대단했다. 단 한해 동안에 18,000 장의 최상품 수달 가죽이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한편, 북태평양의 거센 바람에 고생하던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고래잡이들은 배도 수리하고 자신들도 쉬어갈 수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잘 보호된 항구들이 무척 고마왔다. 오늘날 San Francisco 근처에 있는 “리차드슨 베이”는 초기 포경선들의 휴식처였다. 거기서, 그들은 그리웠던 각종 고기, 과일, 곡식등 각종 식량을 채워, 다시 아프리카 남단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는 먼 항해 준비를 했다. 포경선들은 캘리포니아의 동전이나 현지 물자들과 교환하고자, 바늘, 양말, 실, 각종 의류등의 제품들을 싣고 왔다. 미국 동부의 “네틀킷”과 “뉴베드포드”에서 온 고래잡이들은 Monterey 에 고래뼈로 된 보도를 감사의 표시 선물로 남겨 두었다. 다른 고래잡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추운 “뉴잉글랜드”로 돌아가서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얘기했고, 이런 얘기들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캘리포니아의 인기를 높이는 한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인들도 손에 칼을 든게 아니라, 다른 미국인들처럼 상거래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계속 들어왔다. 1740년대에는 “비투스 베링”이 알래스카에 본부를 둔 “러시아-미국 모피회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면서, “시트카”에 위치한 거래소에 막대한 모피를 쌓아두게 되었다. 열악한 알래스카 기후와 황량한 지역 사정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지어보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잡아 들이는 바다 수달은 지역의 스페인 관리들과의 충돌마저 감수할 정도로 풍부했다.

1805년, 러시아 황제의 시종이었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레자노프”가 북태평양에 위치한 러시아 식민지들을 조사하러 왔는데, 그는 “시트카”에서 바깥 여윈 이주민들이 마른 까마귀를 먹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레자노프”는 식량을 잘 배달하지 못하는 러시아 배들을 대신해, 캘리포니아로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그 팀은 San Francisco 에서 대접을 잘 받게 되었고, 스페인 사람들과의 협상중 “레자노프”는 그만 항구 사령관 “아르게요”의 15살 먹은 딸 “킨셉시온 아르게요”와 사랑에 빠져 버리게 되어, 사령관 “아르게요”로 부터 “시트카” 식민지에 식량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쉽게 얻어 내게 되었다. 1806년 5월 8일, “레자노프”의 배 “주노”호는 밀, 보리, 완두, 콩, 동물기름, 마른 고기등을 가득 싣고 다시 San Francisco 로 돌아와 “아르게요”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출발했지만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수녀가 되어 한없이 기다린 끝에 1850년이 되어서야 “아르게요”는 “레자노프”가 시베리아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1809년 “이반 쿠스코프”라는 “러시아-미국 모피회사”의 또 한사람의 관리가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그는 남쪽에 까지 장소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띄고 있었다. 1812년, “쿠스코프”는 어로와 사냥을 할 “알류트” 인디언들을 동반하고 캘리포니아에 다시 와서, 기지 장소 확보에 대해 캘리포니아 관리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전략적인 위치를 골랐는데, 그곳은 오늘날 “보데가베이” 18마일 북쪽에 있는 해변가이다. 그는 4각형 지역에 표시를 하고, 둘레에는 울타리를 치고, 모퉁이에는 대포를 설치했다. 안에는 목재로 6-8개의 방, 카펫, 피아노, 멋진 유리 창문을 가진 관리들용 집을 지었다. “알류트” 인디언들용 곡물 저장소, 작업장, 오두막 집은 울타리 밖에 두었고, 부두, 가죽공장, 목욕탕도 현지에 건설했다. 그들은 그곳을 러시아란 말의 변형인 “로스”라 불렀는데, 울타리 때문에 그곳은 이후에 “로스 요새”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Chapel and well inside the stockade at Fort Ross. Courtesy Fort Ross Interpretive Association, photo by Daniel F. Murley.



“쿠스코프”가 “로스 요새”를 만들고 있던 1812-1813 년 사이에 스페인 관리 “가브리엘 모라가”가 러시아인들의 활동을 조사하러 와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식량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 1813 년 1 월에 말 3 마리, 소 20 마리, 여러 “파네가스”의 밀, 그리고 “로스 요새”사람들과 거래해도 된다는 “아리야가” 주지사의 허락을 가지고 다시 찾아 왔다.

비록 나중에 멕시코시티에 있던 뉴스페인 총독이 “쿠스코프”에게 정착지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하게 되지만, “아리야가”의 약한 경비대는 그러한 총독의 명령을 실행에 옮길 힘이 없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가축을 손질하고, 벽돌과 타일을 굽고, 큰 통들을 만들고, 로프를 짜는등 활동을 계속했다. 그들은 또 네척의 조그마한 나무배를 건조했고, 온실에서 민감한 식물들을 기르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이 요새 주위에 심은 꽃들은, 마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영구히 머물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안개가 잘 끼고 고립된 “로스 요새”의 인구는 “알류트” 인디언 사냥꾼들과 부인들을 다 포함해도 400 명을 넘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인들은 “트리니다드”와 San Francisco 만 사이 해안가의 수달들을 다 잡아 버리게 되었다. 1812-1840 사이에 러시아인들은 San Francisco 만에서 가까운 “파탈로네스” 섬에도 한때 조그만 기지를 운영하기도 했다.

러시아인들은 활발한 탐험가들이었다. 스페인 식민지들이 반란을 일으키던 1808-1821 사이에 항해가이자 과학자인 “윌리엄 폰 쿤츠부어”가 두번 알타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그가 만든 좋은 지도에는 캘리포니아 해안과 “시에라 네바다” 산맥 가운데 지역이 “미지의 땅”이라 표시되어 있었다.

1806 년 이후에 “가브리엘 모라가” 중위는 46 번이나 적대적인 인디언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가 지나 다닌 지역들은 그가 이름 붙인 몇개의 강들을 보면 알수 있다. “모라가”는 “킹”강, “멀세드”강, “마리포사”천 등의 이름을 지었고, 한 곳에는 “엘 리오 데 리스 플루마스” (깃털 강) 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거기서 강위에 떠 다니는 많은 야생 조류들의 깃털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그 강이 지나가는 카운티의 이름이 바로 “플루마스 (깃털)” 카운티이다.

“솔라” 주지사가 떠나자 말자 “모라가” 같은 스페인 관리들은, 캘리포니아 내부 지역이든,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이든,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라는 변방 지역은 스페인에 반란을 일으킨 식민지인 멕시코 관리들이 통치하게 되었다.